독일 농촌관광 현황과 지원정책

박 상 준* · 김 인 건**

‘농장에서 즐기는 휴가’로 대표되는 독일 농촌관광은 농외 소득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농촌관광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하고 양적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질적인 성장을 우선하고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1 농장에서 즐기는 휴가(Urlaub auf dem Bauernhof)

■ ‘농장에서 즐기는 휴가(Urlaub auf dem Bauernhof)’[1]는 독일의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독일 내에서 농촌관광을 즐기는 가장 주요한 방식임.

- 농장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농촌지역의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숙박을 포함한 농장 관련 시설 전체를 포함함.

■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의 친척을 방문해 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이후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점차 친척을 방문하는 농촌 휴가는 사라졌고, 농촌 관광은 이제 농촌 경제의 부수입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졌음.

■ 1950년대와 60년대 농촌의 기계화로 노동력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면서 농장 내 유휴공간이 늘어났고, 이러한 유휴공간이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되었음. 또한 과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주로 소득이 낮은 서민층이 농장 휴가를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사회인구집단이 자연, 농업에 대한 교육,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장에서 휴가를 보냄.

■ 과거 가장 일반적인 농촌 휴가의 형태는 농장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휴가를 보내는 것이었음. 그러나 농촌에서의 휴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다양해지고, 장기 숙박을 통한 휴가 외에 일일 관광 등 기간이 짧은 농촌관광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특산품이나 전통 요리, 농촌 전통 체험 등 즐길 거리가 농촌관광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과정(psj8710@gmail.com)
**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 철학 석사(grandfriend82@gmail.com)
1) 독일 농장 휴가의 간략한 역사는 Hermann(2020) 참조.

독일 농촌관광 현황과 지원정책

- 농촌관광의 테마 또한 기존의 농장에서의 휴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가족 농가 체험, 동물과의 교감을 위한 활동이나 승마, 유기농 농장 체험 등으로 분화되고 있음.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수요가 높음.

| 그림 1. 가족 대상 동물 사육 농장의 예시 |



자료: Familien-Baue\ww.bauernhof-rauert.de)(검색일: 2020.06.16.)

■ 도시를 벗어나 교외로 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유행하고 독일의 관광산업 또한 성장세에 있으나, 농촌으로 분류되는 인구 5천명 이하의 지역은 이러한 추세에 뒤쳐져 관광 수요의 성장이 비교적 더딤.

- 농촌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 또한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2 독일 농촌관광 현황

2.1. 농촌관광 공급 현황

■ 2017년 기준, 독일 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농업 관련 사업체 약 1만여 곳에서 약 13만 8,000개의 침상을 제공함. 이 중에는 캠핑장이나 건초더미에서 숙박을 하는 호이헤어베르게(Heuherbergen)를 구비한 곳들도 있어 각각 추가로 1만 7,000여명과 3,000여명을 수용가능함.

■ 농촌관광에 신규진입하는 사업자가 줄어들고 있음. 독일 농업의 구조적 변화와 저조한 농업 승계, 교외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한 시설 확장과 수용인원의 제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따라서 농촌관광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 후기(post-growth)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독일 농촌관광 현황과 지원정책

■ 농촌 숙박 사업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부수입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51.8%은 주업, 33.9%는 부업으로서 활발하게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고 있음.

- 부가가치가 높은 부수입원(재생에너지, 임대업, 임업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부수입원으로서의 숙박업의 인기는 줄어들고 있음.

■ 전통적으로 소규모 농업이 발달하고 휴양지로 유명한 바이에른, 바덴뷔어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등 지역에서는 농촌 숙박서비스 제공자 중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동독의 신연방주에서는 반대로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대부분 50% 이하로 낮게 나타남.

■ 농장 숙박을 제공하는 농업경영체는 평균적으로 다른 농업경영체와 비교해 농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적은 편이며 매출 규모상 주로 소규모 가족농에 해당함.

- 연매출액이 2만 5,000유로 이하인 소규모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3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체의 80%가 연매출액 10만 유로를 넘지 않았음.

■ 숙박업은 소규모 농업경영체의 추가 수입 수단인 경우가 많으며, 숙박업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함.

- 숙박업 수입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전통적으로 농장 휴가 전통이 발달한 지역의 숙박업 수입 비율이 더 높음.

- 숙박 제공 농업경영체 4곳 중 1곳 꼴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숙박업에서 얻으며, 전체 중 절반은 숙박업 수입이 수입의 1/4를 차지함.

- 나머지 1/4의 농업경영체에서는 숙박업 수입이 전체 수입의 25%를 넘지 않음.

■ 숙박제공 사업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페리엔보눙(Ferienwohnung)[2]의 형태로 숙박을 제공하며, 또한 약 1/4는 객실만 별도로 제공하기도 함.

- 평균적으로 하나의 숙박 제공 사업체는 4개의 숙박시설에서 15개의 침상을 제공함.

■ 숙박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농업경영체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

2) 페리엔보눙 또는 페리엔하우스(Ferienhaus)는 한국의 펜션에 해당하는 숙박 시설로, 주방 등 설비들이 갖춰져 있고 호텔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페리엔보눙은 건물 내 독립주거공간이며, 페리엔하우스는 독채 형태임.

독일 농촌관광 현황과 지원정책

-〈표 1〉에서 특화된 테마에 따른 농촌 숙박업소의 분표를 볼 수 있음.

| 표 1. 농촌 숙박 제공 농장의 테마별 분포 |

	동물 사육 농장	유기농 농장	농업 및 임업	과일 농장	승마 농장	와인 농장	교외 휴가	그 외 테마
비율(%)	68.0	6.3	19.5	3.3	12.8	7.6	5.9	5.0

주: 하나의 농장이 여러 개의 테마를 가질 수 있음.
자료: Ebert et al.(2017), p.56.

■ 동물 사육 농장을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자가 68%로 독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동물 사육의 경우 일반 농가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농촌 관광의 테마로 제공될 수 있으며,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음.

■ 농업 및 임업 테마는 전체 사업자의 2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이며, 동물 사육과 마찬가지로 가족 여행객에게 강점을 보임. 과일 농장과 와인 농장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중요한 테마임. 승마는 독일인들이 즐기는 활동 중 하나로, 말 사육과 승마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농장의 비율 또한 12.8%로 높은 편. 유기농 농장은 최근 수요와 공급 모두가 증가하고 있는 테마임.

2.2. 농촌관광 수요 현황

■ 독일 전체의 관광산업은 성장세임에도 불구, 인구 5,000명 이하의 농촌지역은 이러한 추세에 뒤쳐져 있음.

- 200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독일 전체 숙박일 수가 29%, 유입 관광객이 43% 성장하는 동안 농촌지역에서는 각각 6%, 21%의 성장을 보임. 독일 전체 외국인 숙박의 1/10만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14세 이상의 독일인 중 6.4%가 농장에서 휴가를 보내며, 이들은 연평균 1.7회의 농장 휴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농장 휴가를 이용하는 독일인 중 2/7은 외국의 농장에서 휴가를 즐기는데, 이는 이웃 유럽국가의 농촌관광 제공 농가들과의 경쟁을 시사함.

■ 농장 휴가를 이용하는 독일인의 평균 체류기간은 6.0일이며, 이용객의 절반 가량은 체류기간이 4일을 넘지 않아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이 짧은 편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아동을 동반한 단체 관광객으로 약 1/3을 차지, 개인이 홀로 농장을 찾는 경우는 12%에 불과함.

독일 농촌관광 현황과 지원정책

■ 농장 휴양객의 사회인구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41세,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경향(김나지움(Gymnasium) 졸업자가 높은 비중)을 보임. 월평균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약 2,666 유로임.

■ 농촌 공간의 일일관광은 50% 이상이 주말에 이뤄졌으며, 일반적인 외출에 비해 계절성이 강해 농촌경관을 즐기는 활동이 많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52.5%가 집중됨. 친구 및 지인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36.4%), 활동 중에는 하이킹(24.1%)과 산책(15.8%)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 농촌 일일관광을 위한 평균 이동거리는 102.3km로 독일 전체 일일관광 평균 이동거리인 65.8%보다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나며, 대부분 승용차로 이동함. 농촌을 찾는 1일 관광객은 1인당 하루 평균 18유로를 소비했으며, 이 중 외식과 음료(3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식료품 구매(31.2%), 레저 이용 및 입장권, 현지 교통비, 각종 요금(16.1%)이 그 뒤를 이었음.

■ 농촌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국내여행 선호, 2)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아동이 있는 가족의 감소, 3) 지역 대중교통망, 장애인 접근성 등 교통 접근성, 4) 디지털화로 인한 여행정보 습득 및 예약 행태 변화, 5) 농촌관광 서비스의 컨텐츠 및 주변 관광지의 매력, 6) 도시를 벗어나 교외를 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유행 등이 꼽힘.

3 농촌관광 관련 지원정책

■ 독일에서 농촌관광 사업자를 위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이루어짐. 독일 GAK[3]의 농업경영체지원(Förderung landwirtschaftlicher Unternehmen)과 통합농촌개발(Integrierte ländliche Entwicklung, ILE)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관련 투자보조금이 제공되며, 농업연금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은 농촌개발부문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관광에 관련된 융자를 제공함. 이외에 EU LEADER를 통해서도 농촌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GAK의 농업경영체지원 사업 중에서도 소득다각화(Diversifizierung) 사업은 농외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농촌관광에 직접 관련됨. 농업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중 운영 형태나 규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 내용의 타당성이 입증된 1만 유로 이상의 투자에 대해 해당 투자금의 최대 25%까지 보조금을 지원함.

- "농장에서의 관광(Urlaub auf dem Bauernhof)" 분야 투자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 25인 이하의 시설로 지원이 제한됨.

3)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 공동임무(Gemeinschaftsaufgabe Agrarstruktur und Küstenschutz).

독일 농촌관광 현황과 지원정책

■ 2020년 소득다각화 예산은 총 1,169만 유로로, 재원별로 GAK 약 492만 유로, EU EAFRD 약 561만 유로, 지자체 등 기타 재원 약 115만 유로이며, 2020년의 지원대상은 198개임.

■ 니더작센-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작센, 작센안할트 등의 지역에서는 2014-2020 사업기간부터 소득다각화 지원에 관련된 정책수단을 지역 농촌개발프로그램(RDP)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 사업기간 해당 정책의 활용이 저조했기 때문임.

■ GAK의 통합농촌개발(ILE) 사업 중 농촌에 적합한 인프라 확충(Dem ländlichen Charakter angepasste Infrastrukturmaßnahmen)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인프라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인프라 지원은 농촌 지역 내 도로(산책로, 진입로, 자전거길 등) 조성 및 확충이 주를 이루며, 관광 잠재력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 안내판, 휴게소, 쉼터, 전망대, 벤치 등 또한 설치할 수 있음.

- 인프라는 보통 공공기관이 담당하지만,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구 1만 명 이하 지역의 농업 및 임업경영체가 소요비용의 최대 35%를 지원받아 직접 길이나 도로를 개별적으로 신설, 확장할 수 있음.

■ 2020년 지원대상은 225개 사업이며, 이를 위해 총 4,345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됨. 재원별로 GAK 약 1,415만 유로, EU EAFRD 약 1,860만 유로, 기타 재원 약 1,070만 유로로 구성됨.

■ 농업연금은행은 6개 부문에 대한 융자 형태의 투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농촌개발 부문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인프라, 농촌관광상품, 농촌 숙박시설, 요식업, 문화 및 여가시설 등 농촌 관광 관련 투자에 대한 융자를 제공함.

■ 농업연금은행의 지원대상은 GAK와 달리 농업경영체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 내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함함. 융자액은 1년에 1,000만 유로로 제한되며, 융자금 신청과 상환은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이뤄지고, 농업연금은행의 융자금을 GAK의 보조금과 합쳐서 사용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해당 지원사업 부문(농촌개발)에 제공된 융자액은 총 1억 8,520만 유로, 신청액은 2억 1,570만 유로로 신청액과 융자액 모두 2018년보다 약 4,000만 유로가 늘어남.

독일 농촌관광 현황과 지원정책

4 독일 농촌관광 지원정책 진단

■ 농촌관광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개별 농업경영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가가치, 소득, 고용률, 세대 재생산 등 농촌개발 전체에서의 정책 효과는 미미하였음.

■ 농촌관광 지원정책, 특히 소득다각화와 같은 직접 보조금 등의 활용이 저조함.

- 주요 요인으로는 대부분 소규모에 해당하는 농촌관광 제공 농업경영체들의 행정적 부담, 주로 농업경영체로만 제한된 지원대상, 정보제공과 상담 등 정보 지원의 부족, 농업 관련 직업 선택 기피, 농업경영체 수의 급감(2007년에서 2014년 사이 약 10.8% 감소) 등이 꼽힘.

■ 해당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으며, 포괄적이고 보완적인 상위 개발정책 등이 잘 갖추어 졌을 때 농촌관광 지원정책이 성공적이었음. 특히 EU의 LEADER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실행그룹(Local Action Group)의 지역개발전략(Local Development Strategies, LDS) 내에 농촌관광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이 포함된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음.

참고문헌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2019. “Förderung landwirtschaftlicher Unternehmen ab 2020”.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2020. “Rahmenpla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2020-2023”.

Ebert, V., Haarhoff, C., Strecker, O., Möller, A., Bensch, L., Deckert, M., & Schröder, A. 2017. “Ist-Situation und Marktpotenzial im Agrotourismus”.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Heike Hermann. 2020. Ferien auf dem Bauerhof.

Rentenbank. 2020. “Geschäftsbericht 2019”.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https://www.bmel.de/)